

양로원 생활의 장단점에 관한 연구

-농촌지역 중류층 유료시설을 중심으로-

Conveniences & Inconveniences of Living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Focused on Middle Class Paid Facilities in Rural Area-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부 교수 이 인 수*

Dept. of Elderly Welfare, Han-Seo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Lee, In-Soo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explore conveniences and inconveniences of daily lives in rural residential care facilities among the elderly residents. In this study, five males and seven females aged 68 to 78 were asked about socio-familial and physical aspects of their daily lives in the facilities such as meals, social activities, family visits, recreation, and health care. The answers of the qualitative interview were drawn as follow; first, the residents perceived well planned regular meals and snacks, free visits of friends, regularly supervised daily sanitary activities, periodic outdoor activities, education programs provided by religious experts, and pastoral farming lives as most convenient aspects of the retirement facilities. In addition, some felt that facility life made them free of familial conflicts, while others appealed fear of being forgotten because of distant location. On the other hand, they perceived the supervised group activities and meals as major inconveniences. They also felt persistently depressed when closely observing serious illness or deaths of their co-residents. Therefore in this study, suggestions were made as follows: first, combination of normal family life and retirement facility should be developed in the mixed form of community welfare center and shared home. Second, intensive medical care facilities should be in collaboration with the retirement facilities, so that the residents are relieved from stressful contacts with extremely ill patients in the residential area.

▲ 주요어(key words) : 양로원 생활(life in residential care facility), 주기적인 야외 활동(periodic outdoor activities), 통제된 집단 활동(supervised group activitie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고전적인 통념으로 본다면 가정은 인간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꾸려나가는 공간이요 사회적 단위다(Carter & McGoldrick, 1987; Pynoos, 1993). 인간은 생애 대부분 시간을 일반적으로 집(home)이라고 불리는 공간을 가정으로 인식하

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집 이외의 공간을 가정으로 인식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들어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Davis and Wehmeyer, 1991; Dowrick, 1991), 부모가 이혼했기에 홀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청소년은 비슷한 처지의 친구와 함께 거거하는 합숙소를 가정으로 인식한다. 또한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별거하는 사람은 가끔씩 찾아가 보는 부모의 집을 가정으로 인식하기도 하며, 거처가 없는 노숙자(homeless)들은 자신이 또래 집단과 편한 마음으로 머물며 생활하는 공간(예: 역이나 버스 터미널 대합실, 고가다리 밑 공간)을 가정으로 인식한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자녀

* 주저자 : 이인수(E-mail : lee1252@hanseo.ac.kr)

와의 동거가 힘들어 노후에 동료 노인들과 편한 마음으로 일상 생활을 즐기고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으며 몇 년 동안 생활하는 양로원 역시 그들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가정이 될 것이다.

한국인의 노년기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거주형태는 자녀 및 손자녀와 함께 살며 여러 가지 부양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는 것이지만(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김태현, 2000), 급속도로 현대화된 산업사회에서 여성취업이 늘어나고 대부분 생계활동이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기에, 젊은 부부가 노부모를 가정에서 부양하며 일상생활과 건강관리를 보장해드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인식하는 노년층도 점점 증가하여, 과거에는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의 75%이상이 자녀 및 손자녀와의 3세대 동거를 가장 이상적인 노후생활로 인식하였지만(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3) 이제는 자녀이외의 공식적 지원망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권현주, 2002).

노후에 장기간 거주하며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공식 지원망으로 대표적인 것은 노인복지주택, 노인의 집, 양로원, 요양원 등이 있는데 그 중 식사와 의료관리, 여가, 사교활동 등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활동과 부양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장소는 양로원이다(보건복지부, 2001; 서울사이버대학교, 2001).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1년 12월 현재 119개의 양로원이 있으며 이곳에서 생활하는 65세이상 노인은 9천명인데, 시설과 입소노인 수 모두 3년 동안 50%이상 증가한 것으로서(보건복지부, 2002), 우리나라 노인들의 거주가 가정이 아닌 공동주거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재정적 여유가 있는 노인이 스스로 선택 입소하여 생활하는 유료양로원은 현재 24개로서 3년 동안 두배 이상으로 폭증하였는 바, 이제 양로원은 무연고 극빈들의 불가피한 거처라기보다는 노년기 거주의 주요 선택 방안의 하나로 변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정은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해주는 주거 공간 뿐 아니라 구성원과의 적절한 교류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취향과 기호를 충족시키며 원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사회적 장소라는 고전적 정의를 감안해 볼 때(Carter & McGoldrick, 1987), 양로원 역시 오랫동안 숙식을 제공받으며 의료관리와 사교활동을 통해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곳이기에, 노년층에게는 염연한 가정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양로원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한국 현실을 감안할 때, 양로원 생활의 실상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고령화 사회에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미래의 과제인 것이다. 양로원 생활의 실상은 특수한 주체별로 부분적으로 연구된 것이 다소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들의 사기 및 삶의 의욕(이기순, 1994; 이영세·양승규·이정숙, 2000), 그리고 수면과 취침(김경덕, 2000)에 관한 것이며 식사, 여가, 정서, 가족과의 교류 등에 관해 여러 가지 주제를 모두 다룬 것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양로원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이 도출되어, 보다 향상된 고령화 사회 노년기 삶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 연구목적 및 내용

기존 연구에서는 양로원 노인의 사기, 의욕, 수면등 특수 주제 한두 가지에 관해서만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관한 포괄적인 관리방안 제시가 어려웠던 바, 본 연구에서는 양로원 입소노인이 식사, 친구와의 사교활동, 정서생활, 자녀와의 교류 등 일상생활 영역에 있어서 느끼는 종합적인 문제점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포괄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연구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양로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이 입소전의 일반 가정생활과 비교해 볼 때 느끼는 양로원의 장점과 단점을 구술조사하여 영역별로 정리함.
2. 구술조사에서 나타난 양로원 생활의 장단점을 근거로 효과적인 관리방안 및 개선책을 제시함.

II. 관련문헌 고찰

양로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이 느끼는 편리함 혹은 불편함의 배경과 원인을 이해하여 적절한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과연 양로원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양로원은 운영에 있어 실제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한국 노인들 중 상당수는 자녀와 함께 살기보다는 노인전용 시설에서 거주하는 것을 희망한다. 한국주택협회(1993)와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7)에서 전국의 60세이상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중 60%는 자녀와 동거하기를 희망하며 약 40%는 양로원이나 노인아파트와 같은 노인전용 주거시설에 거주하기를 희망한다. 노인전용 주거시설을 선호하는 주요 이유는(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7) ①노인전용 시설이야말로 노후에 신체기능의 저하와 더불어 직면하게 되는 일상생활 보조 및 의료관리 욕구를 적절하게 해결해주는 이상적인 장소라는 믿음(33.7%가 응답), ②노인들과 어울리고 싶은 사교 욕구(22.8%가 응답), 그리고 ③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믿음(1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전용 시설이 일상생활 유지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시설, 종교생활, 자원봉사자의 방문, 노인들끼리의 바둑이나 장기 등이었는데, 이러한 다양한 문화·오락활동을 노인주거시설의 장점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자녀들과 함께 살면 개개의 문화활동을 위해 특별히 외출해야하지만 노인주거시설에 있으면 모든 활동이 시설 내에서 쉽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노인전용 주거시설중 가장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로원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기

능 외에 일상생활 및 의료관리, 그리고 노인들만의 농질성이 보장된 문화활동 혜택을 누리며 자녀에게도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이상적인 사회적 공간으로 기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노인전용 주거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많다. 노후에 이르러 자녀의 곁을 떠나 양로원에 입소하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노인에게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현 외성외, 1998; 서울사이버대학, 2001). 그 첫째는 결혼 후 수십년간 상호 부양관계를 유지해오던 자녀로부터 그리고 사회의 기본 생활단위인 가구(household)로부터 일탈하는 일종의 *从사회규범적 일탈행위*가 되고, 둘째는 오랫동안 생활해오던 주거환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는 적응 행동이고 셋째는 자신의 의식주와 건강관리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의 많은 부분을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과 단체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양로원 생활은 허무감, 피해의식, 우울증이 정서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히 단체생활의 구속이 개인적 취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한국주택협회(1993)에서 노인주거시설 입소를 싫어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50%는 자녀와 헤어지기 싫은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16.7%는 단체생활의 구속이 싫기 때문에 노인주거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이렇듯 한국 노인들은 양로원에 대해 긍정적 시각 못지 않게 부정적 시각도 많으며,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로원에 입소할 경우 시설생활 적응이 잘 안되고 정서불안이 가중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무료 양로원에 입소한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양로원 거주 노인들 대부분은 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혀 활동의욕이 매우 위축된 정서상태를 보인다. 무료양로원 노인의 우울증은 원인의 핵심이 되는 사건이나 인물이 없이 오랜 시간동안의 고립과 허무감에 의해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내성적인 성격으로 고정되는 특성을 지녔다(홍정실, 1995). 따라서 특정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분노와 偏執이 없는 반면, 가족이나 친척등 일차보호자의 지원이 매우 적어 의지하고 만나고 싶은 대상이 없어 외향적인 해결의 노력(예: 대화, 상담)이 없고 자학의 가능성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신효식, 1993; 신미화, 1996). 이러한 특유한 형태의 우울증상에 대해 시설생활증후군(syndrome of facility residence)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시설생활증후군이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수동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피해의식에서 비롯되는 우울의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상태는 점진적이고 *漸時的*(gradually and constantly)으로 발전하여 지능, 언어, 신진대사, 수면, 식욕 등에 장애를 초래하게된다. 이러한 정신·신체기능 장애는,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이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여 사람들과의 접촉이 어려운 양로원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사회와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생겨나는 복합적 우울 증후군이라고도 표현된다(김현태, 1984; 김승혜, 1992; 이기순, 1994).

이상에서 고찰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한국 노인들은 양로원 생활에 대해, 규칙적이고 안정된 일상생활 및 의료관리는 물론 왕성한 사교활동을 보장해 주며 자녀를 편하게 해주는 이상적인 장소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구속된 단체생활을 하며 자녀를 그리워하게 된다는 부정적 시각을 갖기도 하는 등 상반된 인식이 상존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실제 양로원 생활의 경험에서 온 것이 아니고 막연한 관념과 추측일 뿐이다. 또한 실제 양로원에서 생활해 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무연고 극빈층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극도의 우울과 수동적 삶의 태도 외에는 특이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기존 문헌으로는 양로원에 들어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의 막연한 관념만을 추측하거나 혹은 대다수 한국 노년층에 일반화시킬 수 없는 극빈층의 우울증만을 근거로 매우 예외적인 개선책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종류층 노인들이 스스로 입소하여 생활하는 유료양로원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미래 노년층 가정 기능을 수행할 양로원의 관리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경기지역에 소재한 1개 시설과 충남지역 2개 시설 등 총 3개 유료 양로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중 면담에 자발적으로 응한 12명의 자유로운 구술을 정리한 질적 연구다. 조사대상 양로원은 모두 행정 구역상 군지역에 위치하고 시설장 가족이 함께 거주하면서 300坪 이상의 텃밭을 직원과 노인이 직접 경작하며, 보증금 3천만원 이하와 월 납입금 70만원 이하를 받는 중류층 농촌형 시설로서, 조사당시 3개 시설 평균 입소자수는 23.7명이고 평균 연령은 76.3세며, 여자가 73.2%였다. 또한 조사대상 시설 모두 시설장이 기독교 교회 장로로서, 시설 안에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는 입소 노인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과 목사나 전도사님들이 주일예배를 보기 위해 방문하였다.

위 3개 시설의 주거공간 구성을 살펴보면, 시설장 가족이 거주하는 중앙건물 안에 시설노인이 다 함께 식사하는 식당, 사무실, 의무실, 자율 취사공간(시설 노인 20-30명 정도가 모여 간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주방 공간)이 있고, 노인들의 주거공간(living unit)은 중앙건물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주거공간은 과거 일반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입하여 각 방마다 화장실만을 첨가하였으며, 화장실이 딸린 3-5평 크기의 침실에 본인 희망에 따라 1인 혹은 최대 2인까지 생활하고 있었고 주거공간 1개동에 총 5-10명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각 주거동에는 5-10명의 노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이 있지만 안전관리상 주방은 두지 않는 것이 시설 모

두의 공통점이었다. 특히 위 3개 시설은 시설장 자신, 배우자, 혹은 직계가족(동거하는 딸이나 며느리)중 간호사가 1명이상 있었으며, 별도의 간호사실은 없지만 중앙건물 의무실 바로 인접한 곳이 간호사 침실이기에 언제든 필요하면 간호사의 도움을 받을수 있었다.

<표 1> 조사대상자 특성(N=12)

번호	성별	나이	출신지역	교육수준
1	남	73	도시	대졸
2	여	72	도시	중졸이하
3	여	76	농촌	"
4	여	74	도시	"
5	여	68	도시	"
6	남	71	농촌	"
7	여	78	농촌	"
8	남	82	도시	고졸
9	남	75	농촌	중졸이하
10	여	76	농촌	"
11	남	76	도시	고졸
12	여	69	농촌	중졸이하

본 연구에서는 위 시설에서 1년이상 3년이하 기간 동안 생활해오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중 남자 5명, 여자 7명을 2000년 10월 1일부터 2001년 1월 10일 까지 조사하였는바, 조사대상자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자신의 정서상태에 관해 자발적으로 자세히 답변할 능력을 갖춘 비교적 건강한 노인으로서, 만 연령은 최소 68세부터 최대 78세이며 평균은 73.3세로서 대상 시설 전체 입주자 평균에 비해 약 3세 적었다. 교육수준은 대졸 1명과 고졸 2명이고 나머지는 중졸이하였으며, 12명 모두 배우자와 사별하였지만 아들을 1명이상 두고 있으며 아들의 재정보증하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2단계 과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는 조사대상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 대부분이 모인 자리(예: 식사나 오락시간)에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희망자를 선별하는 과정으로서 3회이상 방문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입주노인들 대부분은 외부 사람들과 자신의 신상에 관한 대화 나누기를 원치 않거나 혹은 <모른다> <글쎄>등 무응답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기에, 표준화된 양식에 의한 설문조사는 가능성이 희박함이 나타났다. 또한 사회성이 높고 활발하여 시설생활에 잘 적응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면담을 원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런 사람은 대개 고도로 사교적이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시설운영과 시설장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만을 미리 준비한 듯이 희밀적으로(예: 모든 것이 최고수준이라 내집처럼 생활한다) 얘기하여 연구의 조사목적과 잘 맞지 않았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기에, 면접요원이 여러번 예비방문을 하

여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을 12명 선발하였으며, 본 조사에서는 이 12명을 대상으로 본 질문을 하였다. 면접요원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생 3명으로서, 조사 시설에 평소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입소자와 안면이 있는 상태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료양로원에 거주하는 노인이 그곳에서 생활하며 입소전 가정생활과 비교해 보면서 느끼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고정된 설문지 양식 없이 자연스런 대화시도에 의해 질문 되었는 바, 질문이 획일적으로 표준화된 문장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대략 <귀하는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예전에 집에서 생활할 때와 비교해보니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떤 점이 불편합니까>라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답변의 길이와 갯수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며 한사람이 한 개만의 친술을 한 경우와 여러 개 친술을 한 경우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1인당 평균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답변내용은 모두 녹음한 것을 재생한 후 사투리나 속어 등이 혼합된 구술을 최대한 표준어 문장에 가깝게 재정리하고, 재정리된 내용을 크게 장점과 단점으로 분류한 뒤 비슷한 영역별로 범주화하였다. 재정리되고 범주화된 답변은 최종적으로 위 3개 시설 시설장들에게 검토하게 하여, 특정 시설에만 국한된 지나친 사적인 얘기(예: 시설장 가족의 외모, 특정 직원의 성격 묘사등)나 신빙성이 없는 답변들을 제외시키고, 3개 시설 모두에게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보편 타당한 답변만을 조사에 이용하였다. 또한 답변 내용을 해석하는데 있어 관련 문헌이 없는 부분은 직접 해당 시설장이나 시설 종사 사회복지사에게 설명을 듣고 그 설명 내용을 결과부분에 부연하였다.

IV. 결과해석 및 논의

1. 장점

1) 남편사망 후 자녀와 불편한 상태로부터의 해방

본 연구에서 양로원 생활은 우선 자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해방감을 주며, 또한 배우자 사망후 자녀세대와 갈등이 생길 때 그러한 갈등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되는 경우가 고찰되고 있다. 특히 여자 노인 경우, 남편 생존시에는 부동산과 현금을 남편이 소유하며 가족내 의사결정권이 노부모에게 많았지만 남편 사망후 대부분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되고 자신의 권한이 많이 축소되어 자녀와 동거하면서 세대 간 심한 갈등이 있었는데, 양로원 입소후 자녀와의 갈등이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서로가 더욱 그리워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조사대상 노인들이 구술한 것을 조사자가 재정리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자 한다.

<사례 1: 자식들을 편하게 해주었기에 흥가분함>

...처음에는 낫편과 둑이서 따로 잘 살았는데 갑자기 낫편이 사망하고 나니까 나 혼자서는 숙식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부득이 아들내외에 험류하게 되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나 돌보느라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밖출도 못하고 침들어하고 또 나는 나 대로 아들내외 생활하는 게 내맘에 안들어 여러 가지로 갈등이 생겨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러다가 이곳에 오니 자식들을 편하게 해주었다는 생각에 흥가분하다..(72세 도시 출신 여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2: 자식과의 갈등이 싫어서 이곳에 온후, 자녀들이 비로소 나를 그리워하며 자주 연락함>

...낫편 살아있을때는 나를 아주 잘 대해 주었다. 그런데 낫편이 사망하고 나서 낫편과 함께 평생 침들며 일해서 마련한 집과 저축해온 돈이 자식들 앞으로 대부분 상속되었고 낫 아들내외에 험류하게 되었다. 이제 내가 자기들한테 의지하니까 나를 업신여기며 어떤 때는 내 앞에서 소리지르며 부부 싸움도 하여, 낫 죽은 낫편이 더욱 그리워지고 우울해지면서 자녀나 손자녀와 얼굴 봄하며 사는 게 아주 싫어졌다. 그런데 이곳에 친구 소개로 들어와 살아보니까 이곳이 천국이다. 누구 신경 쓰게 하는 사람 없이 밥먹고 잠자는 것이 너무 좋다. 내가 이곳에 오니까 비호소 아들과 며느리도 더 나를 그리워하고 일주일에 한번씩은 문안인사를 온다. 마주 대하면서 싫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떠어져 그리워하면서 서로 편하게 지내는 게 웃씬 좋다...(74세 도시 출신 여자 노인 구술내용 정리)

2) 두려움과 고독을 해소

양로원은 홀로 살거나 맞벌이 자녀와 둑거하던 노인의 두려움과 고독을 해소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려움은 이웃이나 자녀와의 충분한 교류 없이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악화되거나 집안에 힘든 일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을 의미하며, 고독은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식사를 함께 할 사람이 없을 경우 느끼는 상실감을 의미하는데(김승혜, 1992; 신미화, 1996), 양로원에 입소할 경우 직원과 의료진과 동료노인이 많기에 두려움과 고독이 많이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일과시간에는 부르면 항상 달려올 수 있고 야간에는 응급의료기관에 언제든지 동행할 생활보조원과 응급구조 차량이 대기중이라는 사실이 두려움을 해소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며, 또한 농료 노인 한두 명을 친한 친구로 사귀며 함께 대화하고 외출하는 것이 고독감 해소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조사대상 노인들이 구술한 것을 조사사가 재정리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자 한다.

<사례 1: 직원들이 항상 곁에 있으니 불안하지 않아 좋음>

...낫편 죽고 혼자 되었는데 도시에 사는 자식은 셋방살이에 맞벌이니 내가 함께 살 형편이 못되어, 이 시골에서 나 혼자 살았는데 같은 마을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하나둘 먼저 죽고 쟁풍 걸려 고생하는 것 보니 나 혼자 살다가 무슨 일이 나면 어떡하나. 도둑이라고 들판이나 불이라도 나면 어찌나 겁나서 집에 혼자 있기 두려웠었다. 그런데 이곳에 오니 우선 직원들, 간호사, 물리치료사, 생활보조원이 항상 옆에 있으니 불안하지 않아 좋다. 불안하지 않으니 혼자 살 때 항상 아프던 것도 별로 아프지 않다...(78세 농촌출신 여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2: 동료노인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외출할 수 있어 좋음>

...자식들하고 살아도 무섭거나 워울진 마찬가지다. 아들과 며느리가 냉연하시나 되아 집에 오고 손자들도 냉듯게 온다. 어디 아프면 자식들한테 폐끼치기 싫어 내색하지 말아야 하고 하루 두끼는 혼자 먹어야 하니 남자 손으로 자려먹기도 침들고 혼자 먹는 냉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양로원) 오니까 우선 아픈데 있으면 그때그때 동반주는 사냥이 많고 또 여럿이서 냉먹으니 냉도 잘먹게 된다. 그리고 새로 친구가 생겨 함께 얘기도 하고 어디 밖출도 하며 어울리는 게 큰 낙이다...(73세 도시출신 남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3: 직원과 젊은 자원봉사자가 곁에 있어준다는 것이 큰 기쁨>

...누가 말약을 위해 옆에 있어준다는게 좋다. 생활보조원이나 간호사가 있다는 게 어떤가. 없으면 불안해서 더 아프지만 누가 있으면 편안해서 아픈 것도 덜해진다. 그리고 젊은애들(대학생 자원봉사)이 자주 찾아와서 어울려 얘기해주니까 정이 들어 자식 찾아오는 것 같다. 집에 있을 때는 경로당에 가봐야 노인네들끼리 술먹고 담배피는게 일인데 여기 있으면 젊은애들하고 재미난 얘기하는 것도 좋다...(74세 도시출신 여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3) 친구의 자유로운 방문

양로원 생활은 또한 친구가 자유롭게 방문하여 하고 싶은 친교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와 둑거할 경우 많은 친구가 방문하여 오랜 시간 머물며 식사와 여가를 함께 하는 것이 힘들지만, 농촌지역 유료 양로원은 넓은 거실과 실비 식당이 있고 취사도구도 있어 많은 친구를 초대하여 비교적 저 비용으로 자유롭게 오랜 시간 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노인 경우 친구가 방문하여 며칠씩 체류하며 함께 요리를 하여 먹거나 생일파티를 할 수 있는데 비해, 남자노인 경우 바둑이나 장기를 둘 수 있지만 함께 요리를 하지 못하고 특히 술을 마시는 것이 금

지되어 여자노인보다는 자유로운 친교생활이 적지만, 그래도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친교활동이 보장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답변 내용을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에게 검토시켜 그 원인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유롭게 친구를 데려와 며칠씩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마다 중앙건물에 자율공간을 두어 자유롭게 취사할 수 있게 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율공간을 구성한 뒤 자원봉사자가 교대로 자율공간을 관리하며 노인들이 가끔 스스로 간식(예: 라면, 떡)을 요리하도록 도와 주기도 하고, 특히 노인의 친구나 가족이 찾아와 그 자율공간에서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생일파티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조사대상 노인들이 구술한 것을 조사자가 재정리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자 한다.

<사례 1: 친구들을 불러다가 실비로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좋음>
 ... 자식하고 살 땐 며느리한테 미안해 친구를 집에 데려오기가 힘들고 어쩌다 데려와도 한두 명이 잠깐 차나 마시다가 가서 서운했는데, 여기서는 머니 시설 측에 얘기하면 실비로 식사를 준비해 주기에 여러 명을 불러서 며칠씩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다. 어떤 때는 친구들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와 여기서 데워 먹기만 하면 된다... (68세 도시 출신 여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2: 친구가 찾아와 며칠동안 머물면서 생일파티도 할 수 있어 좋음>

... 조용하게 낚힐때 피해 주지말 않으면 먼데 사는 친구들 와서 하루 이틀 지내다 가기는 좋다. 자식들하고 살면 누가 한번 오면 큰 악 치르듯이 눈치 보이지만, 여기는 실비로 돈 내고 냉면으면 그뿐이다. 그리고 생일잔치 같은 것은 시설에서도 신경 써서 잘해주고 자원봉사자가 도와주고 후원물품도 들어오니까 부담 없이 친구들 불러들이 수 있다. 다만, 술을 못 먹게 하니까 술을 먹으려면 밖에 나가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그건 단체생활이니 이해해야 한다... (72세 도시 출신 남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4) 규칙적이며 위생적인 식사와 간식

양로원 생활은 하루 세끼 식사와 간식을 규칙적이며 위생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머식사 때마다 따뜻하고 위생적이며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동료노인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며 과일과 다과도 자주 간식으로 즐기는 것이, 건강유지와 정서함양에 기여하여 삶의 질을 크게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배우자 없이 자녀와 동거하던 여자 노인 경우, 아침에 자녀와 손 자녀가 서양식 아침(예: 샌드위치와 우유)을 먹고 출근하기에 아침식사를 원하는 취향대로 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었지만, 양로원에 입소 한 후로는 아침식사를 따뜻한 한국 음식으로 항상 할 수 있어 삶의 의욕과 활동능력이 커지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조사대상 노인들이 구술한 것을 조사자가 재정리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자 한다.

<사례 1: 항상 영양사가 준비해 주는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좋음>

... 늙으면 우선 하루 세끼 냉 잘 먹는 게 쉽지 않다. 자식들하고 살아도 자기들 바쁘거나 어디 가면 내가 차려 먹어야 하는데 남자가 혼자 차려 먹다보면 친들기도 하고 냉맛도 없어 거르기가 일쑤였다. 그런데 이곳에 오니까 뭐니 뭐니 해도 하루 세끼 꼬박꼬박 뜨신 냉해서 주는 게 제일 좋다. 영양사가 신경 써서 깨끗하고 맛있게 잘 쟁겨주고 매번 새로 해서 주니까 상한 음식 먹고 달달 염려도 없고. 살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해결되어 안심이 된다... (72세 도시출신 남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2: 아침을 거르지 않아서 좋음>

... 자식하고 살 땐 아득 부부와 학교 다니는 손자가 새벽에 냉과 우유를 먹고 다들 집을 나서는데(출근, 등교) 나는 그 서양 음식이 싫어 함께 먹지 못하고 혼자 냉을 해먹었지만 혼자 냉 해먹기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아침을 거르는 때가 많았다. 그런데 여기(양로원) 들어온 후는 아침에 따뜻한 냉과 국을 먹으니 살 것 같다. 역시 아침에 냉을 잘먹어야 하루 종일 기운이 난다... (72세 도시출신 여자 노인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3: 간식이 자주 나와서 좋음>

... 간식을 자주 주는 게 좋다. 뛰어이고 끼자고 하루에 서너 번씩 조금씩 주는 게 여간 고깝지 않다. 집에 있을 땐 수박이나 끼자나 뭐 조금 먹고 싶어도 크게 한 통으로 사야 하니 먹고 싶어도 자주 먹지 못했는데 이곳(양로원)은 여럿이 있으니 수박이고 끼자고 한 통으로 여럿이 나누어 먹으면 되니까 간식이 자주 나와 그게 제일 좋다... (76세 농촌출신 여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5) 주요 일상생활 관리

양로원 입소는 남녀 노인에게 있어 ①복욕과 세수, ②이발 혹은 미용, ③세탁, ④청소, ⑤좋은 습관 유지, 그리고 ⑥건강관리와 같은 주요 일상생활이 철저한 지침 하에 규칙적으로 관리되는 장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지도원과 보조원이 매일 아침 침구류 정돈과 방청소를 도와주며 주기적으로 온수 목욕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빨래를 하도록 지도하고 외부에서 방문하는 자원봉사 이미용사가 외모관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항상 위생적인 생활을 하고 상쾌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담배와 술, 돈내기 화투와 같은 습관적 행동을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기에 절제된 생활을 통해 더욱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 장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그리고 방문 회진 의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함으로써, 질병관리와 만성 통증 관리가 잘 되는 것이 일반 가정보다 더욱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조사대상 노인들이 구술한 것을 조사자가 재정리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자 한다.

<사례 1: 일찍 일어나 체조하고 세수하고 맛있게 식사하여 좋음>
...집에 있을 땐 늦잠 자고 세수 안할때가 많았다. 자식들하고 살아도 잠자고 일어나는 것까지 쟁겨주지는 못했고 세수하라고 잔소리하지는 않으니까 자연히 게을러지고 지저분해져서 삶의 의욕이 전전 사라졌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나 혼자 늦잠 자거나 지저분하게 지낼 수 없다. 일찍 일어나 체조하고 세수하고 맛있게 밥먹도록 선생님(생활지도원)들이 떠나다니며 챙기니까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그래도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다... (68세 도시출신 여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2: 잠자리 정돈, 청소, 빨래를 자주 하여 좋음>
... 혼자 살면서 이불 개고 청소하고 빨래하는게 싫어 그냥 되는 대로 살다보니 집안이 엉망이었다. 집안이 엉망이니 친구들 집에 데려올 수도 없었고.. 그런데 여기오니까 선생님(생활지도원)과 일하는 아줌마들이 청소며 빨래며 하도록 자주 참견하거나 혹시 내가 못하는 이불 빨래 같은 것 해주고 하니까 나중에는 생활이 조금씩 깨끗해져서 기분이 좋아지고 젊어지는 기분이다. 귀찮더라도 사名誉은 우선 내가 사는 방과 입는 옷을 깨끗이 하면 살맛이 난다... (76세 도시출신 남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3: 이발사와 미용사가 찾아와 좋음>
... 일주일에 한번씩 이비뇨시약 미용사가 찾아와 돈 안 받고 머니 손질해주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 외출도 자주 하며 즐겁게 생활하게 된다... (74세 도시출신 여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4: 술, 담배, 화투놀이를 끊게 되어 좋음>
... 술과 담배를 일체 못하게 하고 돈놀이 화투도 못하게 하니까 처음에는 많았지만 그래도 그런 나쁜 습관 고친 게 천만 다행이다... (75세 농촌출신 남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5: 건강점검, 물리치료, 약복용 관리가 잘되어 좋음>
... 어디 아파서 여러 가지 약 먹고 치료받는 것 관리해주는데 제일 좋다. 자식하고 살아도 자식이 의사나 간호사는 아니니까 아파도 자식한테 미안해 찾고 견디다가 더 나빠질 때가 많았는데 여기 오니까 우선 어디 아픈데 머리 머리 다 관리해주고 물

러치를 해주고 약 먹을 시간 되면 다 앓아서 해주니까 그게 집보다 훨씬 낫다... (76세 농촌출신 여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6) 전원생활과 정서관리

60세 이후 노년기에는 텃밭에 채소를 가꾸거나 화훼를 재배하는 등 신체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전원생활을 희망하며, 종교활동이나 교육 및 여가활동(예: 노인교실, 평생교육, 레크리에이션)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내세관을 정립하고 성장 발달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이다(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7). 본 연구에서 양로원 생활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영농에 참여하여 전원생활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종교활동, 활동프로그램, 단체 외출 등에 참여하면서 삶의 욕구가 증가하고 노년기 삶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크게 감소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부 종교기관에서 성직자와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목회와 교육프로그램(예: 성경공부, 글짓기, 미술)을 병행하여 진행시키는 것, 그리고 시설에서 주관하는 옛날 생활 체험(예: 가마솥에 밥하는 것, 맷돌로 빈대떡 만드는 것 등)도 노인들에게 큰 정서적 위안이 되며, 이성교제도 삶의 의욕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답변 내용을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에게 검토시켜 그 원인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목회와 교육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설 안에 30-50평 규모의 교회를 두고 있어 지역사회 유지들이 시설 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사(예: 예배, 세례, 성경공부)에 참석하기 위해 시설을 방문하면서 자원봉사로 시설 노인에게 다양한 종교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 도움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옛날 생활체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마다 자율공간에 가마솥, 절구등 민속 생활도구를 보관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지도하고 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조사대상 노인들이 구술한 것을 조사자가 재정리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자 한다.

<사례 1: 채소와 꽃을 가꿀 수 있어서 좋음>

... 직장에서 정년퇴직 할 때쯤부터 어디 시골 가서 농사지으며 조용히 살고싶었는데 그건 그냥 바랜일뿐 돌박풀 사Њ 없는 사골에 혼자 살며 농사짓는 건 불가능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한사Њ 앞에 몇십 평씩 밭을 나누어주고 다같이 농사지으니 재미도 있고 또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도와주니 힘들지 않다. 내가 가꾼 채소가 밤상에 오르고 꽃을 따다 내 방에 놓을 수 있는 것을 갚사하게 생각한다.. (73세 도시출신 남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2: 종교적 인도가 좋음>

... 항상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예배드려 주시니 평생에 지은 척을 속죄하며 천국에 갈 준비를 할 수 있어 기쁘다... (74세 도

시출신 여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3: 양로원 안에 교회가 있어서 좋음>

... 교회가 바로 집(시설)안에 있으니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노래할 수 있어서 좋다. 모든 활동이 넓은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이루어 지는 게 좋다... (72세 도시출신 여자 노인구술 내용 재정리)

<사례 4: 오락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음>

... 교회사람들이 찾아와 노래와 성경공부도 해주시고 극장기, 소풍, 오락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시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76세 농촌출신 여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5: 외출과 이성교제를 할 수 있어 좋음>

...집에서 생활할 때는 어디 나들이 하기가 힘들었다. 집 비우는 것도 겁나고 혼자서 어딜 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여기오니까 임주임에 한 두 번은 승합차 타고 다함께 바닷가도 가고 소풍도 가고 또 어떤 때는 마음 맞는 영감과 달 둘이 애출해서 식사를 하기도 한다. 좀 주책스런 얘기이긴 하지만 이곳에 사는 할아버지 한 분과 마음이 맞아 읍내에 내가 식사하고 영화 구경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맞은 편 방에 살기에 매일 마주 치다 보니까 정들었다.. (72세 도시출신 여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6: 옛날 생활 체험을 할 수 있어 좋음>

... 옛날 생활을 해보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어서 좋다. 자식들하고 살아도 가마솥에 냉해서 누룽지를 해먹거나 호박떡을 만들어 먹을 수는 없었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을 며칠에 한 번씩 한다. 우선 여간 공간이 넉넉하고 여러 재주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오늘은 누가 가마솥에 냉해서 누룽지 만들어 먹고 내일은 누가 맷돌로 갈아 빈대떡 만들고 또 모레는 누가 산에 나물 뜯으러 가지고 해서 간다. 옛날 일들을 하나씩 해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69세 농촌출신 여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7) 소음 없는 편안한 잠

양로원 입소는 남녀 노인에게 있어 소음 없는 조용한 상태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손자녀와 함께 살거나 도로 옆에 사는 경우에 비해 잠들고 싶을 때 조용한 상태에서 편하게 잠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답변 내용을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에게 검토시켜 그 원인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인들이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비교적 큰 침실에 1~2명만 생활하게 엄격히 지도하며 밤 10시 이후는 가급적 다른

방 출입을 통제하고 방문 차량도 주거공간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조사대상 노인들이 구술한 것을 조사자가 재정리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자 한다

<사례 1: 밤늦게 소란 피는 애들 없어서 좋다>

... 자식하고 살 때는 워낙지 않아서 좋으면서도 한밤중이고 새벽이고 부스럭거리고 놀려놓는 애들(손자녀) 때문에 잠자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내색은 안 했지만 뜬눈으로 새옹 때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 노인들 뿐 아니라 소년 피는 사냥 없는데다가 나혼자 냥을 쓰거나 혹은(비용 지불능력에 따라) 치대한 두명 말이 같은 냥을 쓰고 선생님(생활지도원)들이 잠잘 시간 되면 다니면서 다른 놀고 조용하게 하니까 잠을 편하게 잔다... (73세 도시출신 여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2: 차소리와 경운기 소리 없어서 좋다>

... 유증은 시골길도 차가 많이 다니고 새벽부터 경운기 소리가 유연해 잠 설치기가 일쑤다. 집앞으로 시도 때도 없이 자동차나 경운기나 포크레인이 다녀 놓았해서 잠 설치 때가 많았지만 여전 우선 그런 게 없어 좋다. 잠자는 냥은 조용한 구석에 있고 누가 차 타고 찾아와도 우리들 잠 깨지 못하게 저 멀리 주차시키게 하니까 조용히 편하게 잠잘 수 있어 좋다.. (75세 농촌출신 남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2. 단점

1) 자녀와의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과 김기태·박봉길(2000)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배우자 사별후 자녀와 떨어져 홀로 사는 노인 경우 75%이상이 3개월에 한번 이상 자녀가 찾아오거나 혹은 노인 스스로 자녀를 찾아가 만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 조사대상 시설에 있는 노인 중 50%이상은 자녀가 전화나 편지만을 간헐적으로 할 뿐 찾아오는 일은 1년에 1-2회 정도인 것으로 예비조사에서 나타났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양로원 생활은 일부 노인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노인에게 있어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주며,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그리움이 사기저하를 가중시킬 수도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딸은 없고 아들만 있는 노인 경우, 아들은 직장 때문에 시간을 내지 못해 찾아오지 않으며 며느리는 점점 무관심해지는데 대해 큰 두려움과 좌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조사대상 노인들이 구술한 것을 조사자가 재정리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자 한다.

<사례 1: 세월이 흐를수록 버려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짐>

... 처음 이곳에 온후 몇 달은 임주임에 한번씩 아들들이 교대로 손자들을 데리고 보약까지 사들고 와서 좋았지만 1년이 지

나고 나니까 돈만 부쳐주고 전화만 하고는 바쁘다며 찾아오지 않는다. 아들은 직장 때문에 바쁘고 며느리는 애들 공부 돌보느라 못 온다고 한다. 나는 이제 자식들이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무섭다... (76세 도시출신 남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2: 보고 싶어 물며 땀이 없는 것을 후회함>

..자식과 손자가 보고 싶어 우는 날이 많고 이마다 죽기 전에 자식 얼굴도 못 볼까봐 겁도 낸다. 아들은 직장일 때문에 못 오고 며느리도 결국은 내 펫죽은 아니니까 나를 버리는 것 같다. 어미 생각해주는 것은 땀이 허고하는데, 땀 없는 게 몹시 후회스럽다... (78세 농촌출신 여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2) 싫은 노인과의 접촉과 단체생활

양로원 생활은 한 장소에 여러명 노인이 공동생활을 해야 하기에, 사회심리적 특성이나 생활습관이 자신과 현저히 다른 노인과 항상 함께 생활해야 하는 것이 큰 불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수준이나 과거 직업, 자녀의 사회적 지위, 살아온 지역 특성, 생활습관이 현저히 다른 노인과 ①함께 팀을 구성하여 오락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 ②매일 마주 보면서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일, 그리고 ③부득이 방 배정이 함께 되어 생활하면서도 불평하기 힘든 것이 불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시설에서 단체 급식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하는 것이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불편을 겪는 경우가 고찰되고 있다. 급식에서의 불편은 주로 밀반찬과 육류에서 느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신이 평소 즐겨먹는 김치와 다른 종류의 김치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공되거나 돼지고기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후원이 들어왔기에 며칠동안 계속해서 돼지고기 반찬이 나오는 경우 노인들이 불편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조사대상 노인들이 구술한 것을 조사자가 재정리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자 한다.

<사례 1: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이 접근할 때 불쾌함>

... 낸 대학을 나오고 우리 애들도 모두 대학교육을 시켰다. 그런데 여기 들어오니까 무식하고 무례한 노인네들이 함께 어울리자고 하여 기분 나쁠 때가 많다. 어떤 때는 아주 몰상식한 노인과 손잡고 춤을 추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친해졌다고 매일 방에 찾아와 말을 걸어 귀찮다. 바로 옆방에 사니까 매일 얼굴 봐야 하니 싫다... (73세 도시출신 남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2: 단체로 움직이기에 싫은 사람을 피할 수 없음>

..여기 오기 전에는 그래도 동네에서 대접받고 살았다. 공무원 하다가 퇴직했고 자식들도 다 좋은 직업을 가졌기에 남들이 나를 존중해주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뭐든지 단체로 다 같이 움직이니까 냉각을 때나 예배복 때나 바로 옆에 아주 무식하고

못돼먹은 노인이 암아 학부호 말 걸어도 피할 수 없다... (72세 도시출신 남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3: 싫은 사람과 같은 방 쓰기>

.. 누구나 하여튼 싫은 사람이다. 낸 △△道(지명 표기는 생략함) 사람은 짙색인데 그런 사람하고 방을 쓴 적이 있었는데 대놓고 불평할 수는 없지만 불편하기 짹이 없었다. 혼자 방을 쓰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돈을 더내야 하니 할수 없이 정해주는 대로 방을 함께 썼는데 오래 지내다 보니 정이 들었긴 하지만 하여튼 한동안 어색하고 말 걸기가 싫었었다.. (68세 도시출신 여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4: 이상한 버릇을 가진 사람과의 접촉>

.. 아주 이상한 버릇을 가진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게 싫을 때가 있다. 코를 푸거나 이를 깊거나 세수를 안 하거나 하는 노인이 거실에서 낯장을 자거나 내방에 불쑥 늘어와서 낯장을 자거나 할 때는 아주 싫다.. (75세 농촌출신 남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5: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함>

.. 옛날에 김치 한 종지와 된장 한술에 냄새 한 사발 먹는다고 했다. 매일 먹는 김치와 장이 입에 안 맞아 억지로 먹다보니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또 누가 돼지고기의 잔뜩 가져오면 (후원목포) 그걸 전신 저녁 내려 먹는데 돼지고기가 싫은 나는 그런 날 차려와 라면이나 끓여먹는다... (76세 농촌출신 여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3) 충격적인 사건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일

끝으로 본 연구에서 양로원 생활은 한 장소에 여러명 노인이 공동생활을 해야 하기에, 동료노인에게 발생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자신도 때때로 우울한 정서에 함께 사로잡히는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격적인 사건은 주로 ①치매나 중풍 등 갑작스런 건강 악화, ②사망, 그리고 ③자녀의 사업실패나 이혼으로 인한 지원 중단을 들 수 있다. 특히 동료노인의 건강악화나 사망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할 때는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에게 생길 때만 잠시 지켜보지만, 양로원에서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입소자가 다 함께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보기에 더욱 그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조사대상 노인들이 구술한 것을 조사자가 재정리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자 한다.

<사례 1: 사건을 접할 때 나의 죽음을 상상하며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함>

..여기 오기 전에는 누가 죽던가 중풍이 들어도 내 옆집 사람이나 친한 친구나 친척 아니면 알지 못했다. 그리고 옆에서 오래 지켜보지는 않았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일이 몇 달에 한

번씩 잊어나는데 한 지붕아래니 놔면 할 수가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오랫동안 옆에서 매일 지켜보고 병시중을 듣거나 장례를 치르면서 나도 이런 일이 있어 낄 거라 생각하고 울며 여기 온 것을 후회할 때가 많다... (69세 농촌출신 여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사례 2: 하루아침에 외톨이가 되는 것을 지켜봄>

.. 자식에게 불행이 닥치는 노인을 보면 나도 아주 우울해 진다. 아들이 갑자기 부도나고 이혼하여 도망 다니면 이곳에 내야 할 돈 송금이 끊기고 찾아오지도 않는다. 할 수 없이 보증금에서 까먹으며 이제나 저제나 자식이 다시 재기하기는 눈이 빠지게 기다려지면 예의치 않으면 결국에는 거지 신세가 되어 나가야 한다. 자식 일로 불안해하는 노인을 보면 나도 아주 우울해진다. 여기 있으면 다른 노인들 안 좋은 일을 함께 지켜보는 게 큰 스트레스다... (71세 농촌출신 남자 노인의 구술내용 재정리)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유료양로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이 예전의 가정생활과 비교해 볼 때 느끼는 양로원의 편리함과 불편함을 구술 조사하여 영역별로 정리하였는바, 연구결과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양로원에 입소하여 영농생활을 하고 있는 비교적 건강하고 낙천적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2/3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998),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대다수 노인들이 양로원에 입소하여 느낄 수 있는 성향으로 일반화되어서는 안되며,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이 폐적하고 전원적인 환경에서 느끼는 특성이 강하다는 전제 하에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면담은 시설내 거실에서 이루어 졌으며 노인들은 조사원들이 평소 자원봉사와 실습을 위해 시설을 자주 출입하며 직원과 친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부정적인 진술을 하면 시설 측에 알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하여 진술은 긍정적 내용이 다소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선진국 노인주거시설에서 빈번히 보고되는 시설직원의 불친절이나 방임 등(Levesque, 1993; Pillemer and Moore, 1989) 경영측면의 부정적인 사례는 진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직원과 교류가 있는 사람이 시설 내에서 조사한 결과라는 가정 하에 해석되어야 하며, 비밀이 절대로 보장된 상태에서 조사된 지극히 객관적인 것으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모두 배우자와 사별하였기에 평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며 정서적으로 의존을 할 대상이 없었던 노인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사별후 무료하고 힘든

생활을 하다가 시설측에 의지를 하기 위해 입소한 경우, 즉 시설에 대한 의존심과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관한 조사 결과로 해석되어야 하며, 부부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입소한 후 시설에 대해 공정하고 냉철하게 느끼는 경우로까지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스스로 선택하여 입소한 유료양로원 경우 무연고 극빈 대상 노인이 피처 못할 사정으로 입소한 무료시설과는 달리 많은 긍정적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로원 입소가 자녀와의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손쉬운 도피처가 되거나 혹은 자녀를 위협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양로원 입소가 자녀와의 불편한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장점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고찰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일부의 사례일 뿐, 모든 경우의 성향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의 조사에 의하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65세이상 한국노인의 60%는 장남, 며느리, 손자녀로부터 정서적·물질적 부양을 제공받는다고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 약 75%는 부양받음과 동시에 이들에게 가사노동과 손자녀 돌봄등 부양을 더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바(복수응답), 한국노인들은 전반적으로 동거하는 자녀와의 불균형된 상호교환에의한 불만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에 유료양로원의 장점만이 대중에게 지나치게 홍보될 경우, 양로원 입소가 가족간 결속 강화 노력을 소홀히 하는 수단으로 남용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녀와의 불편한 관계나 노인학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상담하는 노인복지 기관에서는 만약에 피상담자가 문제 해결 방안으로 양로원 입소를 제안할 때, 본 연구에서 고찰된 단점, 예를 들어 원하지 않는 노인과의 무분별한 교류와 단체생활 제약 등을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가족내 갈등이 생겼을 때 양로원 입소를 너무 손쉽게 택함으로써 가족간 유대 노력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보완책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료양로원내에 가족이 방문하여 장기간 머물 수 있는 별도 공간과 세대간 공유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권장하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비록 양로원이 자녀로부터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건강한 70대 초반 소수 노인에 국한된 것이며, 자녀를 그리워하는 경우 역시 다수 고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교육과 출가를 지원하며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자녀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가 높은 한국노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한국노인문제 연구소, 1997), 자녀가 양로원에 가급적 자주 방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자녀가 함께 방문하여 일정기간 함께 생활하게 힘으로써, 양로원 생활이 일반가정에 보다 유사한 정서적 환경으로 균접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료양로원내에 자녀와 손자녀가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노부모와 친밀한 정서교류를 즐길 수 있도록 별도의 유료 가족생활관을 만들고, 특히 방학기간동

한 학령기 손자녀가 체류하며 조부모와 정서교류를 할 수 있는 세대간 공유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복지시설 관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양로원 내에서 연령이나 생활습관, 출신지역등이 비슷한 노인들끼리 자율적으로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 친밀하게 생활하게 하는 이른바 선진국형 <분리식(segregated)> 운영(Pynoos, 1993; Randolph Hills Nursing Center, 1994; 강수지, 1996)이 권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삶은 노인과의 접촉을 불편해 하는 사례가 고찰되었는바, 양로원이 보다 일반가정에 가까운 생활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연령대(70대와 80대), 생활 습관(기상, 취침, 식사등), 출신지역 등 배경이 비슷하고 서로 친해진 노인들끼리 건물 한 구역에 방을 인접시켜 소규모로 그룹을 만들어 생활하는 것을 허용하는 분리식 운영이 시설에 보편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양로원과 임종간호 기관과 협조관계를 구성하여 임종이 임박한 노인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80-90대 초고령 노인이 양로원내에서 임종을 맞이하면서 겪는 고통스런 모습은 오랫동안 다른 노인의 사기와 정서를 크게 저하시키며, 또한 양로원내에서의 임종환자관리에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임종을 맞이하여 정신·신체적으로 고통받는 노인은 임종관리 전문 병원이나 전문요양원에 위탁하는 협조관리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조체제를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임종관리 서비스 팀에서 유료양로원 노인을 실비로 수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종교기관에서 중재해야 하며, 사설병원 중환자 관리팀도 유료양로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의료단체에 대한 계도를 노인복지 관련 기관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양로원과 일반가정의 장점들을 결충한 중간적 성격의 노인복지 서비스 제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일반가정이든 양로원이든 모든 노인에게 절대적으로 장점만을 제공할 수는 없기에, 가정과 양로원의 특성을 겸비한 중간적 복지시설을 개발하여 보다 나은 노후 생활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에 부설된 단기보호소나 노인정에 노인들이 수개월간 체류하는 것을 허용하여, 영원히 자녀로부터 단절되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면서도 비교적 장기간 자녀로부터 독립해서 공공 복지서비스의 장점(예: 규칙적 식사, 사교, 교육프로그램 이용등)을 이용하는 제도적 개선을 기대해볼수 있다. 혹은 서로 친한 이웃 노인들이 노인복지 주택(임대 아파트)에서 공동생활 하여 자녀와의 왕래도 유지하고 취향에 맞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식사를 하되, 인근 복지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재가복지 전문가와 가정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검진과 생활지도를 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일반 가정에서의 거주와 노인주거 시설 거주의 장점을 결충한 다양한 형태의 중간적 복지서비스가 개발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섯째, 유료양로원 생활에 대한 연구조사가 대규모로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 성별, 영령대별, 교육수준별, 그리고 체류기간별로 구분된 개선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양로원 생활이 노인의 건강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배경변인과 체류기간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이다. 선진국 경우 연령대, 종교, 교육수준, 시설체류 기간등에 따라 시설 운영방식과 서비스 항목에 대해 각각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특히 양로원에 입소후 1-2년 동안은 삶은 노인과의 접촉을 부정적으로 느끼며 단체급식을 긍정적으로 느끼지만, 7-8년 이후에는 삶은 노인이 더욱 친근해지고 대신 단체급식이 싫어지는 등 시간 경과에 따라 장단점이 교차되는 경우가 많다(Pynoos, 1993). 아직 한국은 유료양로원 수가 매우 적고 개설된 지 10년 이하가 대부분이어서(임춘식, 2000) 소규모 초보적 연구밖에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유료양로원 입소자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미래에는 보다 구체화된 양적 연구결과를 근거로 노인의 특성과 체류기간별로 보다 세부적인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유료양로원 생활의 장점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홍보자료, 특히 입소자의 증언이 첨가된 책자나 인터넷 홍보물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24개 유료 양로원 대부분은 「안락한 노후 생활」 「실버시대의 보금자리」 등 미사여구만을 사용한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는데(한국노인복지학회, 2002), 이러한 문구 외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보다 구체적인 장점이 시설협회에서 배포되는 홍보자료에 첨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사메뉴, 평생교육 프로그램, 외출 및 소풍 일정, 특별 이벤트나 옛날 생활 체험, 소음없는 상태에서의 편안한 수면 사례 등등 보다 구체적인 사례와 이에 대한 노인입소자 느낌이나 경험담이 노인복지 관련 단체를 통해 배포된다면, 미래 노년층의 제2의 가정으로 자리 매김 될 양로원에 대해 모든 사람이 더욱 친근감을 갖고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접수일 : 2002년 7월 15일

심사완료일 : 2002년 9월 26일

【참고문헌】

- 강수지(1996). 실버시대의 실버사업. 서울:동인사
- 권현주(2002). 고령자의 사회적 지지도 선호도의 구조 및 사회인구학적 요인과의 관련성. *한국노인복지학회지* 15, 121-146.
- 김경덕(2000). 양로시설 입소노인의 수면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지*, 10, 247-269.
- 김기태·박봉길(2000).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사회지지망. *한국노년학*, 20(1), 153-168.
- 김승해(1992). 가정노인과 시설노인의 인식기능 및 우울증상에 관한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현(2000). 노년학. 서울:교문사
- 김현태(1984). 불우노인의 발생원인과 대책. 서울: 아산 사회복

지사업 재단.

보건복지부(2001).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02).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서울사이버대학(2001). 사회복지 인터넷 강의록 contents.

www.iscu.ac.kr

송미순(1991). 노인의 생활기능상태 예측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미화(1996). 노인의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효식(1993). 노부모-성인자녀간의 결속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상간의 인과모형 탐색.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효식·서병숙(1992).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가 노부모의 심리적 손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2(2), 99-108.

이기순(1994). 양로시설 거주노인을 위한 사회복지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세·양승구·이정숙(2000). 양로시설 입소노인의 행동과 심리특성. *한국노인복지학회지*, 9, 219-238.

임춘식(2000). 재가복지사업의 성과. *한국가족복지학회* 제5차 워크샵 자료집, 25-47.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3). 노인생활실태조사.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7). 노인복지정책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2002). <http://www.koreawa.or.kr/jboard2.superboard.com>.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주택협회(1993). 설비산업관련 노인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현외성외(2000).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예풍출판사.

홍정실(1995). 재가 및 시설노인의 생활조건과 고독감과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Carter, A. E. & McGoldrick, M.(1987). *The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New York: Gardner Press, Inc.

Davis, S. & Wehmeyer, M.(1991). *Ten Steps to Independence: promoting self-determination in the home self-determination* [Brochure]. Arlington, TX: Author.

Dowrick, S. (1991). *Intimacy and Solitude: balancing closeness and independence*. New York: Norton.

Levesque, L.(1993). Why alert residents are more or less willing to cohabit with cognitively impaired peers: an exploratory model. *The Gerontologist*, 33(4), 514-522.

Pillemer, K., & Moore, D.(1989). Abuse of patients in nursing homes: findings from a survey of staff. *The Gerontologist*, 29(3), 314-320.

Pynoos, J. et. al.(1993). *Housing the Aged*. London: Elsevier Press.

Randolph Hills Nursing Center(1994). *Annual Reports on the Management, Series 2*. Wheaton, MD: Randolph Hills Nursing Center.